 금융위원회	보 도 참 고 자 료			• 생산적 금융 • 신뢰받는 금융 • 포용적 금융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
책 임 자	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신 진 창(02-2100-2830)	담 당 자	윤 덕 기 사무관 (02-2100-2835)	
	생명보험협회 리스크관리지원부장 김 인 호(02-2262-6654)		조 성 준 재무회계지원팀장 (02-2262-6689)	
	손해보험협회 경영지원부장 김 지 훈(02-3702-8571)		이 형 걸 재무회계팀장 (02-3702-8572)	
	여신금융협회 카드기획부장 이 효 택(02-2011-0724)		이 성 길 선임조사역 (02-2011-0759)	

제 목 : 연합뉴스 4.10일자 「연체 가산금리 인하 소급적용에 보험 · 카드 반발」 제하의 기사 관련

< 기사 내용 >

- 연합뉴스는 4.10일자 「연체 가산금리 인하 소급적용에 보험 · 카드 반발」 제하의 기사에서,
- “기존 연체자에게도 인하된 연체 가산금리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. 하지만 기존 연체이자율과 새로운 이자율 상한과 차이가 크게 나는 보험과 카드사들은 이를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.”

< 참고 내용 >

- 연체 가산금리 인하시, 기존 연체자에게 인하된 연체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새롭게 추진되는 내용이 아니며, 업권별 협회가 모두 참석한 금융권 간담회*를 통해 既 협의 · 발표된 사항임

* 취약 · 연체차주 지원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(금융위원장, 은행연합회장, 생 · 손보험회장, 여신금융협회장, 저축은행중앙회장 등 참석, ‘18.1.18일)

[취약 · 연체차주 지원 방안](‘18.1.18일 발표)

- (적용시점) 자율시행 및 고시개정 이전에 대출계약을 체결한 차주도 연체금리 인하이후 연체발생시, 인하된 연체금리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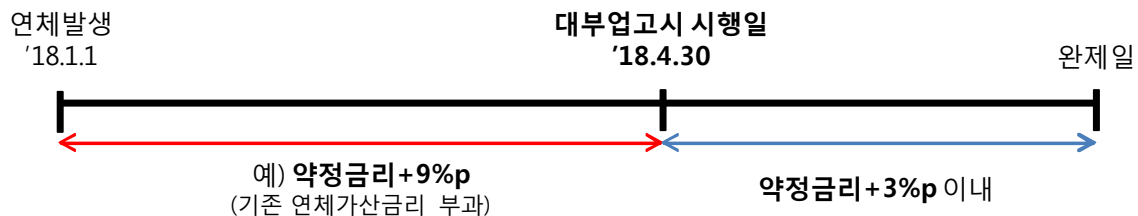
- 또한, 同 방안은 금융당국에서 금융회사에 일방적으로 요구하여 추진된 것이 아니며, 업권별 여신거래 표준약관 등에 근거하여 추진되었던 사안임

※ **현행 업권별 여신거래 표준약관**(이자율 등과 지연배상금) **주요 내용**

-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 등이 변경되는 경우,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이고 금융사정 등 상황변화로 필요한 것일 때는 기존고객에게도 변경 후 최초 이자납입일부터 변경된 연체금리 적용 가능
- * 생·손보는 은행여신거래 표준약관(제3조제6항) 사용, 카드여신거래 표준약관(제3조제6항) 등

※ **(참고) 기존 연체자 적용 예시**

- 기존 연체자의 4.30일 이후 연체분부터 인하된 연체 가산금리 (최대 3%p 이내)가 적용되는 것이며, 4.30일 이전 연체분에 대해서 소급적용되는 것은 아님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